

요즘 사람들속에서 인기를 끄는 모란봉악단공연에 대한 취재를 위해 국가예술공연운영국을 찾았던 우리는 정문에 써붙인 이런 글줄을 보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모란봉악단 공연 관람료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각 지구보급소들에서 판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문앞에서 메를 쓰며 관람료를 사자고 조르고있었다.

국가예술공연운영국에서 일하는듯 한 젊은 녀성이 나와 친절히 설명해주고있었지만 막무가내였다.

우리고 기자의 신분을 확인받고서야 겨우 말을 붙일수 있었다.

《모란봉악단공연 관람료에 대한 수요가 간단치 않습니다.》

《보시다싶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것은 물론이고 매일 수천통의 전화가 걸려옵니

## 매혹적인 공연, 모자라는 관람료

다. 이제는 제 목이 다 쉬어버렸습니다. 각 지구보급소들에서는 이른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와 더 큰 《고층》을 겪고있습니다. 아마 모란봉악단공연은 1년내내 진행되여도 그 관람료가 모자랄 겁니다.》

모자라는 관람료!

무척이나 지친듯 한 표정으로 하는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다.

모란봉악단에 대한 공화국인민들의 사랑과 친근감, 날로 높아가는 문화정서생활에 대한 그들의 지향을 엿볼수 있지 않는가.

언제인가 모란봉악단공연을 두고 쓴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자유민보》의 기사대목이 떠올랐다.

《최고수준의 예술적기량, 뛰어난 미모, 누구나 좋아할수 있는 형식 과감하게 도입, 대중의 마음을 직동시킬수 있는것이라면 그것이 어느 나라것이건 적국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 어쩌면 모란봉악단이 던진 지금의 파문은 작은 시작에 불과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예측대로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날이 갈수록 큰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시대정신이 나뉘치고 생생하며 세련되어있다. 연주가와 가수들의 형상수준이 매우 높고 안상볼도 재여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란봉악단이 인기를 끄는 이유를 다

말할수 없다. 이 악단의 매력은 매번 대조앞에 나설 때마다 새 모습, 세상에 끌림없이 보여주는 새라새로운 모습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번 새라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모란봉악단의 공연에 심취되고있다.

이번의 공연은 또 어떠한가.

녀성중창 《인민의 환희》로부터 시작하여 녀성중창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에 이르기까지 매 종목들마다 자기 특색이 있고 얼굴이 있다.

인민을 위하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전하는 노래가 있는가 하면 제손으로 만복

을 가꾸어가는 창조의 주인공들이 펼치는 투쟁과 생활의 랑만적인 선물도 있다.

무대에 《바다만풍가》가 울릴 때에는 마치 물고기떼 육식거리는 바다한복판을 누비는듯 어깨를 들썩거리며 흥을 돋우고있다. 1시간 남짓이 걸리는 이번 공연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너무 짧다고, 매일 다시와서 보겠다고 말을 하고있다. 한번 본 사람들도 두번, 세번 와서 다시 보고있으니 관람료가 매일 수천장씩 판매되여도 어찌 모자라지 않겠는가.

누구나 기대한다. 사랑하는 모란봉악단이 다음 공연무대에는 또 어떤 새 모습을 펼쳐놓을것인가. 언제나 새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란봉악단의 공연, 그 관람료가 남을 날이 과연 있을까.

본사기자 김춘경



모란봉악단 공연이 관람자들의 대접찬수에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미국의 국무장관 존 케리는 조선을 가리켜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잔인한 곳 가운데 하나》, 《북은 악이고 사악한 곳》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이 정말 그런 나라일까? 조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런 의문을 제기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들에게 나는 단마디로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싶다.

왜냐면 나는 조선에 가서 그곳의 현실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이기때문이다. 언제인가 나는 《내가 본 나라》라는 조선영화를 본적이 있다. 거기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학생 : 《...주체사상을 기초로 발전하고있는 북조선에서는 인민의 존엄이 현실적으로 완전히 보장되고있습니다.》

다카하시 : 《학생은 북조선에서 자기 눈으로 확인했소?》

학생 : 《에?!》

다카하시 : 《...나도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리론으로, 하나의 새로운 학문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그 훌륭한 사상과 리론들이 현실로 된 곳은 없소. 다시말해서 지금까지 나왔다는 그 모든 사상과 리론이 인간의 진정한 존엄을 보장하고 인간의 운명을 개척해주지는 못했소.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의 운명을 숙명적이라고 말하고있는 것이요. 내가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못한 그 어떤것에 대해서도 소홀히 진실여부를 말하지 말

라는것이요.》

학생 : 《선생님, 그럼 선생님은 북조선에 가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다카하시 : (그렇다. 나도 북조선에서 제창한다는 그 사상이 어떻게 사람들의 운명을 개척해주고있는지 그 진실여부를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북조선에 가보야 하지 않는가? 그렇지, 그래. 가보야 한다. 가서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한다.)

... 이 영화의 원형인 일본의 유명

이고 가장 선한 곳이라고. 악이란 도덕적으로 못되고 나쁘며 도리에 어긋나는것을 뜻하는 표현이다. 북의 정책은 근로하는 인민을 위한 선의 정책이며 이 나라에서는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온갖 국가적책택을 받으며 살고있다.

누구나 돈 한푼 내지 않고 창전거리, 만수대거리를 비롯한 살림집들의 주인으로 되고있고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등 각지에 꾸려진 체육문화시설들에서 인민들

은 《장본인》은 바로 복제제이다.》

북인민들은 국가덕에 아무 격정없이 살고있다. 그들은 맨하탄의 마천루가 있는 곳에 20%의 사람들이 집을 가지지 못하고있다는 사실을 모를것이다.

태어나서부터 인민을 위한 선의 정책의 혜택속에서 살고있으니 북인민들도 선의 인간일수밖에 없다.

북에서는 내가 사는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인간사랑의 미풍이 차넘치고있다.

진실로 악의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 미국의 항상 저들을 《만민복지사회》, 민주주의가 제일로 보장된 《발전》되고 《문명한 사회》라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의 말대로 하면 미국에는 자본주의사회일반에 넘쳐나는 빈민자들과 거리와 골목 등을 누비는 로숙자와 동남자들이 단 한명도 없고 미국인모두는 국가의 《혜택》을 받으며 잘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정말 미국은 《만민복

나라의 과학기술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원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주체95(2006)년 1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전자도서관을 찾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대학의 원격교육을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데 하여 말씀하시면서 온 나라에 원격교육의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었다.

지난해 6월 평양기초직공립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에 꾸린 원격강의실에서 종업원들이 컴퓨터망을 통하여 대학강의를 받는것을 보시고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데서 원격교육이 중요하다고, 과학기술직과 실천능력을 겸

비한 훌륭한 인재를 키워낼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원격교육대학은 교원과 학생들이 멀리 떨어져있어도 정보통신수단을 리용하여 교육의 전과정을 거치는 대학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교사를 거점으로 대학생들이 교원들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주어진 교육강령에 따라 대학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원격교육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교원과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컴퓨터망을 통하여 대학과정을 거치게 된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 김일남학장은 원격교육은 땅이 련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어디에서든지, 그 어느때든지 첨단기술에 대한 재교육을 받을수 있고 누구나 대학공부를 쉽게 할수 있는 지식경

제시대에 맞닿는 가장 우월한 교육형태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중등교육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직업과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학시험을 시작하게 되는데 강의자와 수강자가 멀리 떨어져있어도 컴퓨터망을 의한 교육인것으로 하여 지방자의 거주지와 직무에 관계없이 시험에 참가할수 있으며 장에자도 레외로 되지 않는다. 전반적인 무료교육제가 실시되고있는 공화국에서는 사람들 누구나 돈 한푼 안내고 원격교육대학에서 공부할 권리를 가지고있다. 지금 컴퓨터망을 통해 지식을 습득해가는 사람들의 수는 날로 늘어가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에는 기계, 금속, 재료, 전자공학 등 여러 공학분야는 물론 경공업과 식료일용공업분야와 관련한 과학기술지식 그리고 기업관리, 정보기술, 외국어 등 30여개의 학과가 있어 학생들에게 여러 분야의 폭넓은 지식을 준다.

초기에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40여명의 노동자들이 강의를 받는것으로부터 시작한 이 대학의 강의수강자수는 지금은 수천명으로 늘어나고있다.

지금 전국의 많은 공장, 기업소들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하루일을 마친 후 현대적으로 꾸려진 원격강의실에서 컴퓨터망을 통하여 원격교육대학 강의를 받고있

으며 생산현장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있다.

원격교육대학 학생인 김정숙평양제사공장 김명환 지배인은 과학기술인재양성의 최고전당인 김책공업종합대학이 통째로 생산현장을 찾아왔다고, 원격교육이 야말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리상적인 교육체제라고 말하였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중형용광로직장 노동자 백금석은 여기에 앉아서도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의 이름있는 교수선생님들의 강의를 필요한 시간에 다 받고있다. 이전에는 배우려면 대학에 가야 했지만 지금은 컴퓨터만 켜면 공장현대회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기술적문제들을 컴퓨터망을 통해 유능한 과학자들과 직접 협의할수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알기 쉽게 배워주신 정말 편리하다고 말하였다.

과학기술인재양성의 원조장이 평범한 근로자들을 찾아가는 바로 여기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화폭이 비껴있고 최첨단을 지향하며 나아가는 공화국의 현실과 밝은 미래가 어려있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람들에게 가장 리상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해주는 원격교육대학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과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최태성



원격강의실에서 원격교육대학 강의를 받고있다.

## 인터넷홈페이지 《조선로리》 개설

최근 조선로리협회 서재로 리정보기술교류사에서 맛과 냄새, 색깔이 독특하고 약리적가치가 높은것으로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진 조선로리에 대해 알고싶어하는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을 위하여 인터넷홈페이지 《조선로리》를 개설하였다.

이번에 새로 개설된 해외홈페이지 《조선로리》에서는 세상에 자랑할만 한 조선로리들과 식생활풍습을 비롯한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문

화, 조선로리협회에서 발간하는 도서, 잡지들과 협회활동소식, 옥류판, 청류판, 식당배 《대동강》호 등 국내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봉사단위들을 소개하고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입자들은 종류가 많고 다양하며 음식맛이 각별히 좋고 향기로운 조선로리, 색깔이 아름답고 건강과 장수에 효과적인 조선로리의 우수성에 대하여 깊은 리해를 가질수 있다. 또한 이름난 조선로리들

인 신진로, 오탁밤, 약밤, 추어탕, 인삼잡곡, 통배추김치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수 있다.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의 인기를 끌게 될 해외홈페이지 《조선로리》를 개설한 서재로리정보기술교류사에서는 홈페이지의 내용을 더욱 풍부히 함으로써 민족적 특색이 짙은 조선로리들을 대외에 널리 소개선전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 자기 눈으로 보는 삶의 실상

한 기자 다가가 다짜오는 조선에서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북에 대한 방문인상기를 써서 파문을 일으켰었다.

하다면 존 케리에게 물고싶다. 그대 당신은 조선에 가보거나 하고 《악이고 사악한 곳》이라고 전세계에 내뱉었는지? 《대국》의 국무장관이라는자가 제논으로 보지 못하고 일개의 주변국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한다는것자체가 잘못된 일이 아닐수 없다.

그에게 권고하고싶다. 조선에 한번 가서 보라고.

미국에서 살고있는 나는 여러차례 걸쳐 북에 가보았다. 두 나라의 현실을 목격한 체험자로서 당당히 나는 말할수 있다.

북은 《악이고 사악한 곳》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선

이 기쁨과 생활의 랑만을 꽃피워가고있다.

내가 북에 가서 창전거리의 살림집을 돌아본 이야기를 하고싶다. 그때는 내가 북의 실상을 잘 모르던터이니 그런 훌륭한 집을 국가에서 공짜로 주었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았다.

요기리가 하늘을 난다는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이었다. 더 큰 놀라움은 평범한 근로자들이 집주인이라는것이였다. 내 마음을 안듯 집주인이 대체 미국에서는 집값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것이였다. 말이 나가지 않았다. 언제인가 먼저 북을 다녀온 동료가 해준 말이 떠올랐다.

《북주민들은 국가에서 너무도 많은것을 그저 받으면서도 돈 한푼 안 내는 《랑심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이렇게 만

나라를 위해 군사복무하다가 몸을 다쳐 영예군인이 되여도 아름다운 녀성들이 그의 애국적공적에 공감하여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다.

북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의 외곡된 보도에 영향을 받고 인연이 어떻소하며 중상하고 모략한것에 세뇌되어 북녘사회를 잘못 알고있지만 실제로 북은 사랑이 넘쳐흐르는 아름다운 사회이다. 가정에, 직장도 그리고 사회전체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전동으로 주체되고 강성국가를 건설해가고있다.

미국은 이런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나라를 《악의 나라》라고 헐뜯고있다. 북은 명실공히 선의 나라인것이다.

미국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기본권리의 하나인 노동의 권리가 한가닥 꿈에 지나지 않는다.

얼마전에도 미로동성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최근 1주일동안에 전국적으로 새로 등록된 실업자수가 32만 3 00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나는 매일같이 보고있다. 《만민복지》의 화려한 간판밑에서 집없이 방랑하는 수많은 방랑자들과 거리를 메우며 늘어나고있는 실업자의 행렬을, 돈이 없

어 죽어가는 미국서민들과 인종차별행위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몇년전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제도의 기반성과 취약성을 날날이 폭로한 《식요》(없는 사람)라는 기록영화가 인기를 끌며 상영된 적이 있다.

영화에 나오는 마리아너성의 경우를 놓고보자. 회사에 다니던 그는 너무도 머리가 아파 병원에 갔다가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마리아는 즉시 자기가 가입한 블루십드보험회사소속 병원

에 갔으나 그 병원에서는 뇌종양이 아니라고 딱 잡아챘다. 결국 보험금을 받지 못하였다.

보험회사는 《전문가가 뇌종양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보험금을 지불할수 없다.》고 하며 마리아의 호소를 들어려고 하지 않았다.

이는 보험회사가 병원과 짜고 보험금을 잘라먹기 위한 술책이였다.

보험에 든 사람인 경우에도 보험회사들의 교활한 술책으로 보험의 덕을 전혀 볼수 없으며 그 《덕》을 보는것마저도 치료비의 극히 일부뿐이나마 받으면 《행운》으로 여긴다. 결국 미국의 의료보험이란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돈을 빨아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의료보험만이 아니다. 미국에

서는 녀성들에 대한 성폭행과 녀성들과 어린이유괴 및 인신매사건들이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각지에서 이른바 《인권침해소지》가 있기만 하면 간섭을 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과연 이런 자격이 있는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것을 지난해 4월 밝혀진 판파나모 테로용의자수용소사건이 보여준다. 이 수용소에 재판도 없이 수감된 용의자들은 그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미국은 이곳에서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고문을 감행하였다. 미국이 인권의 중추국으로 행세하는것은 전혀 리치에 맞지 않음을 전세계에 보여 주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마치 《인권재판관》이라도 되는듯이 해마다 《인권보고서》라는것을 만들어 북에 대해서 협단을 늘어놓고있다.

인권의 불모지인 미국이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한 곳, 악의 나라인것이다.

악의 나라, 사악한 곳의 국무장관인 존 케리에게 다시한번 권고하고싶다. 단 하루만이라도 조선에서 가서 국민들의 삶의 실상을 들여다보고,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못한 그 어떤것에 대해서도 소홀히 진실여부를 말하지 말라고... 그것이 《대국》의 국무장관의 《체모》에 어울리는 행동이 아닐가싶다.

재미동도 김경운